

연중 제30주일

기도서 P. 464 A해

제1독서 (출 애 22, 20-26)
 제2독서 (데살전 1, 5c-10)
 복 음(마 태 22, 34-40)

숲 정 이

발행처 전주교전주교구
 편집인 사 목 국
 인 쇄 관 리 국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③ 5098 ③ 3201

□ 강론



사랑은 기쁨의 씨앗

이 상 섭 신부

“사랑이 무어나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이것은 홀터간 유행가사의 일부이다. 이 노래 가사가 암시하고 있는 것은 사랑이 눈물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며,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경험속에서 나온 체험담이다. 역시 사랑은 고통(눈물)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자기 희생이 없는 사랑은 어떤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남녀간의 사랑이든, 부모와 자녀간의 사랑이든, 형제간의 사랑이든, 이웃간의 사랑이든 자기 희생이 있을 때 이루어 지고 있다. 자기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허세(虛勢)일 뿐이다.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고통을 아픔으로 느끼지 않고, 오히려 기쁨속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랑은 기쁨이 아니라 글자그대로 고통일 수 밖에 없다.

우리는 간혹 고통없이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 권력이나 강요에 못이겨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남의 이목(耳目)에 못이겨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볼 수 있다. 이들은 십자가 없는 예수를 찾는 편리주의자들이며, 꼭두각시이며, 기회주의자들이다. 남의 등을쳐서 간을 때려으면서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신문지상에 떠들썩하는 사이비(似而非)족속도 있다. 왼손이 하는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야 한다고 떠들면서 아무도 모르게 사랑하는 참된 하는 바리세이파도 있다. 이러한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니다. 참된 사랑은 모성애와 같은 사랑이다.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은 숭고하고 변함이 없으며 우쭐대지도 않는다. 이 사랑은 하느님 사랑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부분적인 사랑이 아름답고 숭고하다면 하느님의 사랑은 어떠하겠는가! 하느님의 사랑은 자식에 대한 국한적인 모성애가 아니라 전체적인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형제들이기에 서로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이웃 형제를 참되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하느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하느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는것은 바로 하느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과 하느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느님과 이웃을 참되게 사랑할때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아니라 기쁨의 씨앗이 되고 하느님 나라의 씨앗이 될 것이다.

<둔울동 전주교회 보좌신부>



바르게 걷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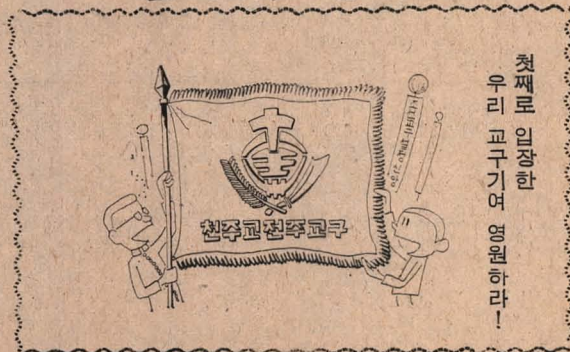
사람이 걸어야 하는 길은 여럿이다. 다만, 그 직책에 따라 다 다르지만, 걷는 자세는 오직 하나이다. 각자가 가야할 길을 성실하게 걷는 것이다. 하물며 배도 뺏길울 지켜야 하고, 비행기나 자동차 등도 그의 길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기차가 철길을 벗어날 때, 그는 이미 성실성을 포기한 것이고, 그로 인한 피해는 막심해서,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생명까지도 앗아가기 마련인 것이다.

사람은 각자가 가야할 길을 벗어날 때 비난을 받는다. 최근에는 한 경찰관의 잘못이 사회의 물의를 일으켰고, 그에 대한 비난의 소리가 높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한 사람의 잘못으로 경찰 전체의 명예를 깎아 뺏개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그를 두둔하자는 이야기도 아니다. 그 역시 인간이라 잘못은 있을 수 있다. 아니, 우리 모두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겸허하게 자신을 되돌아 보는 것이다. 내가 그를 “죄인이라고 꾸짖으며 감히 돌출시킬 수 있는가” 하고. 이것은 시비를 가리는 일조차 그만두자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제게 주어진 책무에 성실해야 한다. 교사의 학생을 가르치는일에 성실해야 하고, 의사는 아픈이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농부나 상인도 마찬가지다. 특히 국민에게 책무를 지고 있는 사람은 더욱더 제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그래서 질서를 바로잡아야 하는 경찰관이 그 질서를 깨뜨리는 일은 용서받을 수 없다. 더더군다나 국방을 담당한 국군이 그가 지켜야 할 곳을 빠져나오는 것은 용서받을 여지도 없다.

우리 모두가 맡은 바에 성실해야 하겠지만, 소위 지도층에 있는 이들은 더욱 그러해야 한다. 군림하지 않고 봉사하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고 끊어버리는 아픔까지도 감내해야 한다.

숲 정 이 산책



傳敎하지 않는 教會는 병든 教會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전교하는 개방성이 없이 그 자체에만 폐쇄되어 있는 교회는 불완전하고 「병든교회」라고 지적하면서 「은 교회는 전교하는 교회일」을 강조했다. 특히 「복음화 사업은 하나님 백성의 기본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누구나가 신앙전파 의무에 있어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야한다」는 공의회 가르침을 인용한 교황은 우리 모두가 이 가르침으로 거듭 되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세계 복음화의 미래야말로 위기에 처해있다.」고 경고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전교의무를 확신하게 된다면 어려움들이 적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교황은 자신이 스스로 복음을 선포하고 싶었으며 어떤 의미에선 순회 교리교사가 되고싶었다고 밝히면서 「아직도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막대한 다수의 사람들과 접촉했다.」고 하면서 「세계는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있다.」고 선언했다.

「가정의 복음화는 사목활동의 주요목표이며 이것은 그리스도인 가정들 자신이 복음화와 전교의 역군이 되지않고 는 완전한 경지에 다다르지 못한다.」고 하면서 가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교황은 특히 「젊은 교회들에 대한 정기적인 지원을 목표로 삼고있는 전교회의 중심기금에 누구나가 다희사해줄 것」을 호소했다. (전교주일 교황 메시지에서)

「로사리오」(黙珠)

기도의 역사적 기원

김 병 열 신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많은 전례 책신 속에서도 변함없이 바쳐지는 로사리오 기도의 역사와 기원을 회미 하나마 알아본다.

로사리오 기도의 기원을 많은 사람들은 초세기의 아일랜드로 생각한다. 그렇시 수도자들은 시편 150편을 중요시 하여 기도하고 노래하며 신심생활의 활력소로 삼았다. 그러나 이런 아름다운 기도를 평신자들은 하고 싶어도 문맹자가 많고, 너무 길어서 다 암송할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초세기에 아일랜드의 한 수도자가 이런 사람을 생각하여 어려운 시편을 대신 할 수 있도록 주의기도 150번 바치는 것도 좋은것 이라고 제안을 하였다.

처음에는 주위기도문 150번을 바치기 위해 작은 돌맹이 150개가 들어있는 주머니를 가지고 150개를 옮기며 기도를 하였으며 그 다음에는 끈으로 매듭을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얼마후에는 매듭대신 나무를 등골게 깎아서 끈으로 150개를 연결시켜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이 차츰 유행전역으로 보급되자 1150년 경에는 성모송의 첫부분을 구성하는 성모송 전반부가 도입 되었다.

13세기경에는 로사리오 신비를 덧붙이는 기도양식으로 발전, 중세 신학자들은 시편 150편이 예수님의 생활, 즉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시편의 내용을 묵상하고 기술적인 여러가지 해석을 붙였다. 이어서 성모 마리아를 찬송하는 150편의 시편을 만들어 50절만을 바칠때는 “로사리오” 즉 장미꽃다발이란 뜻으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되어 13세기에는 4가지의 시편이 같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1. 150번의 주의 기도문
2. 150번의 성모송전반부(천사의 인사)
3. 150번의 예수님 찬송
4. 150번의 성모님 찬송. 이렇게 되므로 혼란을 일으키게 되어 기도의 통일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다.

1365년 칼투시안 수도원의 헨리칼라는 이것을 하나로 묶으려는 시도를 했었고, 성공을 가져와 150번 천사의 인사를 10개로 묶고 그 사이에 주의 기도문을 넣었다.

1409년 프리시아의 성 도미니코는 50번의 성모송에 예수와 마리아의 생애를 기술한 시편을 만들었으며, 이것을 시편과 기도로 연결시킨것이 첫 시도였다. 성도미니코는 헨리가 시도한 것을 종합하여 열번의 성모송과 한번의 주의기도 문으로 만들었는데, 시편에 첨가된 신비를 묵상하는 것으로 되었다. 그후 1425년에서 1470년 사이에 여러가지 양식의 기도가 나왔고 그방법도 서서히 변형되었다.

그러다가 오늘날과 같은 양식의 로사리오가 되기까지는 16세기에 이르렀고 (기쁨·고통·영광의 신비) 또 일종의 요일까지 정해졌다(월·목-기쁨, 화·금-고통, 수·토-영광)일요일(아침-기쁨, 점심-고통, 저녁-영광)

교황 레오 13세께서는 「성모 호칭기도문」에 기록한 로사리오(매피)의 모후라고 삽입했다. 그리고 1854년 12월 8일을 교황제신 성모 무염시태 교리를 신력도리로 선포 하였고, 3년후인 1857년 성녀 벨라베타에게의 성모발현으로 해서 복주의 기도 신풍이 크게 일기시작, 20세기 초기 포르투갈의 파티마에서 3소년에게 발현하여 성모님의 영향으로 복주의 기도는 태풍을 일으켜 현대에 이르렀다.

5단 목주에서 십자가에 사도신경, 주의기도, 성모송 3번 영광송등은 관습에 의해 첨가된 것이고 로사리오 기도의 본질상 꼭 필요로 하는것은 아니다.

(전동 주임신부)

☐ 교우여러분의 가정에 신속 배달 하였습니다

한미주유소

전화 ⑤ 5669 번

주 최남수(아블로니아)

(가톨릭 센터 사무장)

전주시 효자동 1가 283번지



코오롱 맨☆스타 전주 특약점

개성있는 가을패션을 선보이는 코오롱 맨☆스타에서 당신의 가을모습을 찾으세요

콤비·바바리코트·바지·사파리·잠바·남방셔츠·T-셔츠·글렌상하복 등

전주시 중앙동 3가 26-1

중앙동 풍년제과 앞 전화 ⑤4561

金 敎 中(아드리야노)

사진재료 및 기계 칼라필름 도산매

유 광 사

주 유 가에다노(영문)

전주시 경원동 1가 104~26

(상업은행 후문 앞)

전 화 ⑤ 4448 ⑥ 2176

신 앙 대 회

—조선일보 기자 수첩(10월 20일)에서—

『오늘의 보속(補贖)은 쓰레기 즐기다.』

천주교 조선교구 설정 1백 50돌 기념 신앙대회가 끝난 18일 오후 여의도광장에서 신자들이 흠뻑 우스개소리다.

쓰레기를 즐기는 것이 죄과를 보상하는 길은 아니겠으나, 제단의 사제(司祭)가 『우리 주변을 깨끗이 치우자』고 당부하자, 천주교 신자들은 비닐봉투등을 꺼내 휴지, 오물을 담았다. 이미 오물을 담은 봉투가 신자들의 손마다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날 대회를 끝낸후의 여의도광장은 『80만 인파가 언제 다녀갔느냐』고 의심할 정도로 깨끗하게 정돈된 모습으로 되살아났다.

천주교 조선교구 설정 150돌을 기념하여, 처음으로 가진 천주교의 전국규모 신앙대회는 대회장의 청소만이 아니라, 모든 부면에서 질서있는 집단행동을 보여, 신앙을 통해 갈고닦은 모범된 자질을 과시했다.

새벽 5시부터 물터들기 시작한 천주교인들은 광장으로 직접 들어가 지 않고 여의도 곳곳에 마련된 집합장소로 우선 모였다. 성당, 단체별로 행렬을 정비한 신자들은 단체 포지와 깃발을 앞세워 질서정연하게 광장의 지정된 장소로 입장했다. 일부 교인들은 행사가 주도되는 제단이 보이지도 않는 구석을 차지했지만, 3시간여의 신앙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스피커의 지시를 따랐을뿐, 자리를 뜨지않았다.

자리배정도 손님접대의 예의를 지키듯 지방 교구신자들을 좋은 장소로 안내했다. 국군의날 행사시설을 빌어준 서울 대교구는 제단옆의 스탠드와 제단앞의 쿠빈석(?)을 모두 지방교구에 할애했고, 서울 신자들은 광장의 한복판도 지방교구 신자들에 양보하는 미덕을 보였다.

일사(一糸)의 흔들림도 없이 건장하게 진행되던 신앙대회는 김수환 추기경의 감사의 표시로 부드러운 박수의 물결을 일으켰고, 이 박수의 물결은 참가자들의 피로를 일시에 씻어주는 듯 했다. 김 추기경은 국군의날 행사시설을 빌어준 국방부와 군 당국에 감사하자며 신자들에게 박수를 부탁했다.

그는 이어 대회를 잘 치르도록 경비를 서준 경찰, 전국대회가 되도록 촉구해준 언론, 이 대회로 불편을 겪었을 여의도 주민, 지방 교구 참가자, 각 성당의 인솔 반장, 행사 준비위원들에게 차례로 감사의 표시와 박수를 보냈으며, 마지막으로 『비를 멎게하고 행사가 사고없이 끝나도록 이끌어주신 하느님께 감사하자』면서 또한번 박수를 보냈다. 신앙대회의 끝장면은 감사와 박수만이 꽃피었고, 하루 하루가 그렇게 감사하게 살아가야 하는 날임을 가르쳐 주는 듯 했다.

정연한 질서를 보인, 80만이라는 엄청난 인파가 사고한건 없이, 또한 주변을 깨끗하게 원상복귀 시킨뒤, 입장할때의 역순(逆順)으로 해산하는 광경은 장엄한 역사의 한 장(章)처럼 보였다. 우리 국민이, 88년 서울 올림픽의 대임을 맡은 우리민족의 일부가 자신있게 펼쳐 보여준 『질서의 장(章)』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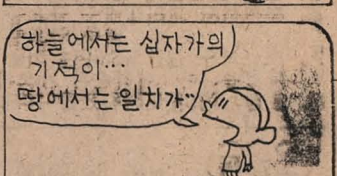
〈徐熙乾 문화부 기자〉

□ 범선배(라우렌시오)신부 귀국

대야본당에서 사목하셨던 범선배(라우렌시오)신부가 4년 1개월의 로마 유학을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귀국 했다.

(축) 영명 박종신·한봉섭(시몬)신부님 : 10월 28일
축하를 드리고 기도중에 기억하자

요심이 (429) 김병오



□ 금·은 보석 시계는 남문현 교우점을 찾아주세요

금 보 장

(전·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저거)
전주 남문현(대지영관 입구)
전화 ④4989(사구광구) ④4988

□신장개업

금·은·보석 고급 시계

보 석 장

군산시 중앙로 1가 경찰서부근
(조흥은행 앞)
전화 ② 2 5 1 3
한 철 재(비오)

三星物産 전주특약점

Weekend 버킹엄 Buckingham
MCGREGOR 주니어 아동복 (남여)

전주시 중앙동 3가 96
삼화약국 옆 전화 ④ 4 4 5 1
유 율 리 안 나

허약한 분, 병약한 분에게!
□보신·보양·고단위 영양 식품

(성모병원) 토 롱 센 타

◎토롱당(한방 고단위 영양식품)
◎전자축점기(신경통, 위장병 치료기) 판매
※(보·허122호/신안특허7328호)

전주 성모병원 3층 303호
(전화주문 배달함) 전화 ④ 5587
황 수 산 나

전기 손수기 가스렌지 및 시설
짜스 손수기 각종 생크
백 곰 표 생크 주방

(東南綜合 생크로社)
전주시 서노동동 639~40
(중앙성당 옆)
전화 ③ 6 9 0 0
金 榮 均(요섭)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1. 교구 예산안 심의 : 10월 26일 오전 10시, 주교관 회의실
2. 중·고생 교리경시대회 포상금 지원 협조에 감사 : 의사회, 약사회, 오지리장학회(각 10만원)
3. 문학강좌 : 일시-11월 7일<토>, 센타 강당
주제-제3세계의 문학을 보는 시각 강사-백낙청(서울대 교수·평론가)
4. 사제단 가을소풍 : 27일<화> 오전 9시 30분 교구청 집합

(중앙)

전화 ③3651번
3874번

주임 신부 문정원
보좌 신부 김희영
보좌 신부 박인경
사도 회장 김병환

※ 11월은 위령성월입니다.

- 연령을 위해 기도 많이 합시다
- 1. 방지거 삼회 : 오후 2시 강당
- 2. 어린이 영세 : 10월 30일<금> 어머니미사 후
- 3. 예비자 교리 : 부활반 부활에 영세받았저 하신분은 10월 30일까지 예비자 등록마감 합니다. 세례받으실 분은 기간에 착오없이 바랍니다
- 4. 고등학생회 추계 체육대회를 사정상 연기합니다
- 5. 청년 신심단체 체육대회 : 11월 1일<일> 오전 9시
- 6. 통신성서 교리 :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미사후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미사후
- 7. 조선교구 성절 150주년 기념 신앙대회 : 성황리에 잘 마쳤읍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협조에 감사합니다
- 8. 본당살림이 어려워졌습니다 : 교무금 완납하세요

(노송동)

전화 ②7032번

주임 신부 김정원
사도 회장 박춘근

1. 베소라 성서강의 : 3일<화> 저녁 7시 30분~9시 30분
주제 : 예수 머리위에 향유를 부음-메세아의 임무-마르코 14 : 3-9, 마태 26 : 6-13, 요한 12 : 1-8, 루카 7 : 36-39, 중심으로 합니다
2. 사도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상임위원들의 빠짐없는 참여를 바랍니다
3. 수녀님들의 베소라 성서특강 : 26일 오후 2시~4시
4. 교무금을 납부합니다 : 교무금 년예산액 : 16,650,000원, 9월말현재 수납액 : 6,026,500원(36%),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금주의 성경읽기 : 구약의-전도서와 아가서 전체
6. 견진성사 접수 : 견진성사를 받으실 분은 11월 8일까지 사무실에 접수하세요. 신청서는 사무실에 있음
7. 성령기도회 : 매주<금> 오후 2시~4시까지
직장인들은-매주<금> 저녁 7시 30분부터

(덕진)

전화 ②2182번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유영도
사도 회장 양상열

1. 진복회 월례회의 : 공식미사 후
 2. 성모회 월례회의 : 할머니들 필히 참석하세요
 3. 부녀회 월례회의 : 회원님들의 빠짐없는 참석 바랍니다
 4. 미사시간 변경 : 11월 1일부터 저녁 8시미사→7시로 변경, 저녁미사에 참석하시는 분들 착오없이시절...
 5. 견진대상자 신청 : 11월 1일까지 마감
견진자 교리는 11월 1일부터 시작
 6. 오늘 주일학교 소풍 : 많은 어린이 보내주세요
 7. 예비자 교리 : 일요일 공식미사 후
많은 예비자 인도...
 8. 모든 신자분들은 각 신심단체에 가입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 177,920원

(복자)

전화 ②5238번

주임 신부 김희영
보좌 신부 김희조
사도 회장 김희호

- ※ 11월은 위령성월 : 매 미사후 공동 위령성월 바칩
 - 1. 사도회 : 오늘 공식미사 후
 - 2. 첫침례 5 : 11월 5일 저녁 7시 30분
 - 3. 첫침례 7 : 11월 7일 저녁 7시 30분
 - 3. 복자부녀회 : 11월 2일<월> 어머니미사 후
 - 4. 견진교리 : 10월 26일부터 11월 7일까지
매일 저녁미사 후
 - 5. 혼배성사 받으실 분 : 1개월전에 신청 바랍니다
 - 6. 사무장 자택 전화번호 : ⑥ 6196번
 - 7. 차주 전래 : 해설-김정순, 독서-①염규철 ②박석순
- 지난주 봉헌금 : 103,045원

(서화동)

전화 ②2276번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한형수

1. 할머니회 :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2. 사도회 월례회 : 11월 8일(둘째주일) 주일로 연기
※ 사도회 임원님들은 차질없이 바라오며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견진성사 : 11월 1일
※ 견진자 1차소집이 10월 26일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견진성사 받으실 분은 필히 참석바랍니다
교리시간-26일~31일 저녁 7시 30분
4. 가정방문 : 6만-29일~30일
5. 다음주 전례담당 : 독서-①김한기 ②차상열

(윤정이)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수·유·②9567 사도 회장 이강도

1. 요안회 월례회 : 11월 25일 공식미사 후
2. 복사단 회합 : 매주일 오후 5시
부모님들께서 협조 바랍니다
3. 중·고등학생 성가연습 : 매일 오후 6시
학생들 빠짐없이 참석 바랍니다
4. 젊은이 성경연구 : 매주 화요일 밤 7시 30분
젊은이들 많이 나와주세요
5. 밀린 봉헌금 납부하여 본당 어려움 도움시다
6. 차주 전례담당 : 해설-이귀례
독서-①박한태 ②이중상, 기도-이중옥

(전동)

전화 ③3222번

주임 신부 김병준
보좌 신부 박이종
사도 회장 이종두

1. 글라라 형제회 : 오후 1시 30분
 2. 울뜨레야 : 10월 31일<토> 오후 8시
 3. 성가정회 : 11월 1일 오후 2시
 4. 사도회 : 11월 1일 공식미사 후
 5. 유아세례 : 11월 1일 학생미사 후
 6. 추계 가정방문 : 11월 10일부터 실시
 7. 학생 추계소풍 : 오늘, 장소 : 안골
 8. 중·고생 성가경연대회 연습 : 매일 저녁 7시 30분
※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9. 다음주(11월 1일) 전례담당
아침미사 : 해설-박종구, 독서-①박순기 ②이신홍
공식미사 : 해설-양현홍, 독서-①이덕수 ②최병래
저녁미사 : 해설-경양수, 독서-①이영철 ②정동화
- 지난주 봉헌금 : 227,755원

(파티마)

전화 ②0915

주임신부 김영일
사도회장 채수현

1. 유아세례 : 오늘 오후 3시
 2. 성모회 월례회 : 다음 금요일 어머니 미사 후
 3. 로사리오의 밤 : 31일 밤
※ 견진자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4. 견진자 신청은 금주내로 : 견진교리 11월 2일부터 5일까지, 매일 밤 8시부터 1시간
 5. 사도회 월례회 : 다음주일
 6. 기사회 : 다음주 토요일
- ◎ 수리비 (이요셀·강마리아 부부) : 10,000원
□ 지난주 봉헌금 : 58,200원 교무금 : 38,000원